### 참고문헌

#### 특집 |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현재와 전망

####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 신기영

권숙인,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 2008

김귀옥, 「분단과 전쟁의 디아스포라: 재일조선인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1호, 2010, 여름호.

김부자, 「HARUKO: 재일여성, 디아스포라, 젠더」, 『황해문화』 통권57호, 2007, 겨울호.

김종곤, 「'재일' &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지향성: 재일 조선인 3세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59, 2014.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돌베개, 2006.

오가타 요시히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인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8.

이성, 「재일조선인과 참정권」, 『황해문화』 2007, 겨울호.

조경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이동과 경계정치」, 『사회와 역사』 제91집, 2011.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 연구소 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 이주와 정주를 중심으로』, 선인, 2003.

테사 모리스 스즈키, 한철호 옮김, 『북한행 엑서더스』, 책과함께, 2008.

福岡安則、『在日韓国·朝鮮人』、中公新書、1993.

松田素二・鄭根植編。『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と東アジア社会』,京都大学学術出版会,2013.

鄭根植、「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の形成と再編成」、松田素二・鄭根植編、『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と東アジア社会』、京都大学学術出版会、2013.

尹京媛、「コリアン・デイアスポラー植民地主義と離散」、小林知子・陳天璽 編著、駒井洋 監修、『東ア ジアのディアスポラ』(叢書グローバル・ディアスポラ1)、明石書店、2011.

小林知子・陳天璽 編著, 駒井洋 監修, 『東アジアのディアスポラ』(叢書グローバル・ディアスポラ1), 明石書店, 2011.

Butler, Kim D., "Defining Diaspora, Refining a Discourse," Diaspora 10(2), 2001.

Clifford, James,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1994.

Cohen, Robert,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London: UCL Press, 1997.

Ryang, Sonia & John Lie eds., *Diaspora Without Homeland: Being Korean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Safran, William,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Spring, 2001.

Shain, Yossi & Aharon Barth, "Diaspor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3), Summer, 2003.

Sheffer, Gabriel, Diaspora Politics: At Home Abroa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Tölölyan, Khachig, "The Contemporary Discourse of Diaspora Studies," *Comparative Studies of South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27(3), 2007.

Vertovec, Steven, "Three Meanings of 'Diaspora,' Exemplified Among South Asian Religions," Diaspora 7(2), 1999.

###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소개된 재일조선인 지식인의 민족담론: 서경식의 '식민주의 저항'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조관자

고화정, 「이질적 타자, 재일조선인의 초상」, 『황해문화』, 2007, 겨울.

다카하시 도미오, 곽형덕 옮김, 「'세계문학'으로서의 아시아문학」,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던 일본현 대문학: 전쟁·호러·투쟁』, 글누림, 2014.

서경식, 「'재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역사비평』, 1996, 여름.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 』 『창작과비평』, 1998, 겨울,

서경식, 임성모·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 사이: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돌베개, 2006.

서경식,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 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윤건차, 「통일 앞둔 한국은 민족주의 새 지평의 시험대」, 『월간 말』, 2000년 10월호,

조관자, 「"민족주체"를 호출하는 "재일조선인"」, "일본학』 32, 2011.

조관자, 「이양지가 찾은 언어의 뿌리」, 『사이間SAI』 제3호, 2007.

허병식, 「재일조선인 자기서사의 정체성 정치와 윤리: 서경식의 '在日'인식 비판」,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39집, 2015.

池内恵,『イスラーム世界の論じ方』,中央公論新社,2008.

伊能武次、「第五章 アラブ諸国とパレスチナ問題」、『平成13年度外務省委託研究「イスラエル内政に関する多角的研究」』、日本国際問題研究所、2002.

姜信子, 『ごく普通の在日韓国人』, 朝日新聞社, 1987.

竹田青嗣、『〈在日〉という根拠一李恢成・金石範・金鶴泳』、国文社、1983.

鄭章淵,「'パックス エコノミか'時代の到来と在日社会」, 『季刊青丘』 第24号, 1995.

徐京植、『秤にかけてはならない: 日朝問題を考える座標軸』, 陰書房, 2003.

はすみとしこ、『そうだ難民しよう! はすみとしこの世界』、青林堂、2015.

歴史学研究会 編、『国民国家を問う』、青木書店、1994.

山脇啓造,「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分類枠組に関する試論」,『明治大学社会科学研究所紀 要』第38巻 第2号, 2000.

山野車輪, 『嫌韓流』, 晋遊舎, 2005.

尹健次、「「在日」を生きるとは:「不遇の意識」から出発する普遍性」、『思想』 811, 1992.

和田春樹, 高崎宗司, 『北朝鮮本をどう読むか』, 明石書店, 2003.

Ajami, Fouad, "The End of Pan-Arabism," Foreign Affairs 57(2), Winter 1978/1979.

297 참고문헌

Aviv, Caryn & David Shneer, New Jews: The End of the Jewish Diaspor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 재일코리안의 직업적 지위의 동태:

#### 인구 센서스 데이터로 보는 1980~2010년의 변화 | 히구치 나오토

福岡安則・金明秀、『在日韓国人青年の生活と意識』、東京大学出版会、1997.

韓載香、『在日企業の産業経済史』、名古屋大学出版会、2010.

樋口直人 編、『日本のエスニック・ビジネス』、世界思想社、2012、

金原左門 外、『日本のなかの韓国・朝鮮人、中国人』、明石書店、1986.

庄谷怜子・中山徹、『高齢在日韓国・朝鮮人』、お茶の水書房、1997.

谷富夫編,『民族関係における結合と分離』, ミネルヴァ書房, 2002.

外村大、『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 形成・構造・変容』、緑陰書房、2007、

在日高麗労働者同盟、『在日朝鮮人の就労実態調査』、新幹社、1992.

Alba, Richard & Victor Nee, Remaking the American Mainstream: Assimilation and Contemporary Immigr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ortes, Alejandro & Ruben Rumbaut,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Heath, Anthony F. & Sin Yi Cheung eds., *Unequal Chances: Ethnic Minorities in Western Labour Mark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전문가 집단의 현황을 통해 본 재일동포사회: 변호사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 유혁수

- 동선희, 「계간 『삼천리』(1975~1987)의 '재일문제' 논의」, 『재일코리안의 생활 문화와 변용』, 선인, 2011.
- 아사쿠라 도시오·오타 심페이 엮음, 『한민족 해외동포의 현주소: 당사자와 일본연구자의 목소리』, 학연문화사, 2012.
- 유혁수,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과제: 올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10 호. 2014.
- 유혁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위상」, 『일본비평』 12호, 2015.
- 유혁수·은용기, 「일본의 외국인 법제의 개요와 과제」, 『일본공간』 17호, 2015.
- 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대결의 역사 1945~2015』, 북콤마, 2015.
- 히구치 나오토, 「재일코리안의 직업적 지위의 동태: 인구 센서스 데이터로 보는 1980~2010년의 변화」, 『일본비평』 14호, 2016.
- 田中宏、『在日外国人-法の壁、心の溝: 第三版』、岩波書店、2013.
- ネイサン・グレイザー, ダニエル・P.・モイニハン, 阿部 斎・飯野正子 訳, 『人種のるつぼを超えて』, 南雲堂, 1986.

樋口直人、「在日外国人のエスニック・ビジネス一国籍別比較の試み」、『アジア太平洋レビュー』, 2010. 金敬得、「自分を取り戻す道」、『環』 vol. 11, 2002 秋.

臼杵陽 監修、『ディアスポラから世界を読む』、明石書店、2009.

####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더블'의 역사성에 관한 담론을 통해 | 리홍장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鄭暎惠、『〈民が代〉斉唱』、岩波書店、2003.

福岡安則、『在日韓国·朝鮮人』、中公新書、1993.

徐阿貴、『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 御茶ノ水書房、2012、

ソニア・リャン、『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明石書店、2005.

- 山口健一、「在日朝鮮人一日本人間の〈親密な公共圏〉形成: 『パラムせんだい』における『対話』の成立条件検討を通じて」、山口健一編著、『GCOE Working Papers次世代研究51 在日朝鮮人 / 在韓中国朝鮮族社会における親密圏・公共圏の変容』、京都大学グローバルCOEプログラム 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をめざすアジア拠点、2011.
- Clifford, James,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1994. (有元健 訳,「ディアスポラ」, 『現代思想』 26(7), 1998)
- Gilroy, Paul,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London: Verso, 1993. (上野俊哉・毛利嘉孝・鈴木真一郎 訳, 『ブラック・アトランティック』, 月曜社, 2006)
-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Jonathan Rutherford ed.,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 & Wishart. (小笠原博毅 訳,「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ディアスポラ」,『現代思想』42(5), 2014)
- Safran, William,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1991.

#### 1990년대 이후 조선족의 도일과 정주화: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관점에서 | 권향숙

권태환 편,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권향숙, 「조선족의 일본 이주와 에스닉 커뮤니티: 초국가화와 주변의 심화 사이의 실천」, 『역사문화연구』 4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 권향숙, 「조선족의 일본 이주에 관한 시론: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 『일본비평』 8호, 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 2013.
- 권향숙, 신종원 옮김, 『이동하는 조선족: 소수민족의 자기통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박광성, 『세계화 시대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 변화』, 한국학술정보, 2008.
- 趙貴花,「高學歷中国朝鮮族の移動: 先を見つめる子育てとハイブリッド·アイデンティティ」, Review of Asian and Pacific Studies 37, 2012.
- 宮島美花,「中国朝鮮族の移動と中国の社会保障:戸籍制度と「単位」制度から」,『北東アジア地域研究』 20,2014.
- 権香淑、『移動する朝鮮族: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彩流社、2011.
- 権香淑、「中国朝鮮族の移動する文化とコミュニティ: 跨境的生活に埋め込まれた親族ネットワーク」、『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14号、風響社、2015.

299 참고문헌

林梅、『中国朝鮮族村落の社会学的研究: 自治と権力の相剋』、お茶の水書房、2014.

「〈국내 조선족 70만〉①~⑤」 『연합뉴스』, 2015, 2, 4,

Mika, Miyajima, "Transmigratory Movement and Life-world of the Korean-Chinese in Northeast Asia: based on Life Histories of Chaoxianzu/Chosunjok Women," Frontiers of North East Asian Studies 12, 2013.

Parreñas, Rhacel Salazar el Salazar,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Domestic Work, Standford, CA: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1.

Castles, Stephen & Miller, Mark J.,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4th ed., 2009.

#### 연구논단

### '확대 지향'의 시 형식과 '축소 지향'의 시 형식: 시조와 하이쿠의 형식상 특성에 대한 하나의 비교 분석 | 장경렬

김문기 · 김명순, 『조선조 시가 한역의 양상과 기법』, 태학사, 2005.

김윤식, 『한국 근대 문학 사상』, 서문문고, 1974.

윤덕진, 「「정과정」의 성립 과정」, 『한국고시가문화연구』제34권, 2014,

장경렬, 『시간성의 시학: 시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정병욱 편, 『시조 문학 사전』, 신구문화사, 1966.

황위주, 「조선후기 소악부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木村三四吾 · 井口壽 校註, 『竹馬狂吟集 · 新撰犬筑波集』, 新潮社, 1988.

雲英末雄·山下一海·丸山一彦·松尾靖秋 校註·譯, 『近世俳句俳文集』, 小学館, 2001.

鈴木日出男 · 山口慎一 · 依田泰 共著, 『原色小倉百人一首』, 文英堂, 1997.

佐竹昭広 外 校註, 『万葉集』 第2券, 岩波書店, 2000.

De Man, Paul, Blindness and Insight: Essays in the Rhetoric of Contemporary Criticism, 2nd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Miner, Earl Roy, Comparative Poetics: An Intercultural Essay on Theories of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ound, Ezra, A Memoir of Gaudier-Brzeska, London & New York: John Lane, 1916.

Rogers, William Elford, *The Three Genres and the Interpretation of Lyr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Rutt, Richard, The Bamboo Grove: An Introduction to Sijo,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 정진성

한상일 · 김영작 외, 『일본형 시스템: 위기와 변화』, 일조각, 2005.

青木昌彦・奥野正寛 編, 『経済システムの比較制度分析』, 東京大学出版会, 1996.

秋吉史夫・柳川範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関する法制度改革の進展」、寺西重郎 編、内閣府

- 経済社会総合研究所 企画・監修, 『構造問題と規制緩和, バブル / デフレ期の日本経済政策 第7 巻』。 廖応義塾大学出版会、2010.
- 阿部正浩,「非正規雇用増加の背景とその政策対応」, 樋口美雄編,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企画・監修, 『労働市場と所得分配, バブル / デフレ期の日本経済政策第6巻』,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10.
- 江藤勝、「構造改革における規制改革・民営化」、寺西重郎編、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企画・監修、 『構造問題と規制緩和、バブル/デフレ期の日本経済政策第7巻』、慶応義塾大学出版会、2010.
- 小峰隆夫、『日本経済の構造変動:日本型システムはどこに行くのか』、岩波書店、2006.
- 小峰隆夫 編,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企画・監修、『日本経済の記録 第2次石油危機への対応から バブル崩壊まで(1970年代〜1996年) バブル / デフレ期の日本経済と経済政策(歴史編)I』, 慶応 義塾大学出版会, 2011.
- 小峰隆夫編,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企画・監修、『日本経済の記録金融危機, デフレと回復過程(1997~2006年) バブル / デフレ期の日本経済と経済政策(歴史編)II』,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11
- ドーア・ロナルド,藤井真人 訳,『日本型資本主義と市場主義の衝突』,東洋経済新報社, 2001. (Ronald Dore, *Stock Market Capitalism: Welfare Capitalism: Japan and Germany versus the Anglo-Sax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内閣府, 『経済財政白書』(各年版), 内閣府.
- 宮島英昭、『日本の企業統治』、東洋経済新報社、2011.
- 宮島英昭・河西卓弥、「金融システムと企業統治」、橘川武郎・久保文克編著、『講座・日本経営史第6巻 グローバル化と日本型企業システムの変容』、ミネルヴァ書房、2010.
- 安井健悟・岡崎哲二、「労働市場・雇用システム改革」、寺西重郎編、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企画・監修、『構造問題と規制緩和、バブル/デフレ期の日本経済政策第7巻』、慶応義塾大学出版会、2010.
- Sako, Mari, "Organizational Diversity and Institutional Change," Masahiko Aoki, Gregory Jackson & Hideaki Miyazima eds.,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Insituinal Change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01 참고문헌

### 국문초록

#### 특집 |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현재와 전망

####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 신기영

투고일자: 2015, 12, 26 | 심사완료일자: 2016, 1, 9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이 글은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현재 및 집단적 · 개인적 경험을 이해하는 개념틀로서 디아스포라론 의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재일코리안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시각 은 일본 내 소수민족집단이나, 넓게는 초국가적 이주민의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은 정주 국에 사회문화적으로 동화의 수준이 높으면서도 귀환할 수 있는 모국(현실적 또는 상상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른 소수집단과 다르며, 귀화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 해온 점에서 초국가적 이주집단의 틀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주목받아온 디아스 포라론은 재일코리안을 정주국과 모국의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형성되는 민족집단으로 특징짓고, 모 국-디아스포라-정주국의 삼자구도 조건 속에 형성되는 이주와 정주의 역사 및 정체성에 대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그러한 디아스포라론에 입각할 때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디아스포라가 되었으며, 무엇이 지금까지 디아스포라적인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 게 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특수성을 전통적인 디아스포라론의 삼자구도 가 아닌, 동아시아의 전후 냉전의 역사에서 형성된 사자구도(적대적인 남북한-재일코리안-일본)의 구조에 두고,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구체적인 삶과 정체성은 이러한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 되고 변화해왔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는 단일한 집단정체성의 가정을 배제하고, 재일코리안의 디아스포라화에 대한 복수(複 数)의 역사를 듣고 쓸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재일코리안, 동아시아,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화

###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소개된 재일조선인 지식인의 민족담론: 서경식의 '식민주의 저항'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조관자

투고일자: 2015, 11, 18 | 심사완료일자: 2015, 12.3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서경식은 1990년대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전체 민족의 네이션'을 주장했다. 그러나 2002년 무렵부터 그의 논점이 변화한다. 재일조선인을 '민족해방·주권국가의 주체'에서 '난민·반(半)난민' 으로 재규정했다. 그의 입론은 팔레스타인의 현재적 문제를 재일조선인론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글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한 서경식의 저항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했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도 '다국적, 다민족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공생론이 대두했다. 그러나 서경식은 '공생'을 '동화'로 비판한다. 재일조선인 은 일본의 '에스닉 마이너리티'가 아니며, '전체 민족의 네이션'을 건설할 주체라는 것이다. 그는 모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식민지배로 인해 조국에서 추방당했다는 '식민지 기원 신화'를 만들고, 일본에서 식민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고발한다. 따라서 민족해방의 도달점으로서,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Palestine National Council)와 같은 '전체 민족'의 '주권기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코리안의 네이션'론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오니즘과 닮아 있다.

서경식은 상징천황제를 유지하는 일본사회에 '시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천황제 민족주의든, 코리안의 반일 민족주의든, 그들이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태도는 닮았다. 그들은 시민적 공생에 입각하여 정치적 균열과 차이를 조율하기보다, '전체로서의 민족' 논리에 입각하여 정치적 의지를 통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서경식의 비타협적 민족담론이 과연 일본과 한반 도의 탈식민화, 그리고 아시아의 탈냉전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되묻 고 있다.

주제어: 공생. 코리안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 다민족시민사회

#### 재일코리안의 직업적 지위의 동태:

#### **인구 센서스 데이터로 보는 1980~2010년의 변화** | 히구치 나오토

투고일자: 2015, 11, 17 | 심사완료일자: 2015, 12, 1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재일코리안은 취직 차별 때문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취직 차별이 완화되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재일코리안의 직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인구 센서스 위탁조사 집계를 사용하여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변화의 방향으로 (1) 에스닉 엔클레이브화, (2) 경제적 동화, (3) 분극화라는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1) 자영업 이탈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에스닉 비즈니스 (ethnic businesses)가 유지되며 젊은층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에스닉 엔클레이브화는 지속되고 있다. (2) 1966년 이후 출생자의 대부분은 화이트칼라로 진출하여 일본인과의 차이가 적어지고 세대 교체에 의해 경제적 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3) 1946~65년생은 자영업 폐업과 실업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실업자 비율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극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젊은층에서도 실업률에 격차가 있다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1)과 (2)의 효과에 의해 재일코리안과 일본인의 직업상 격차는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재일코리안, 계층, 취직 차별

#### 전문가 집단의 현황을 통해 본 재일동포사회: 변호사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 유혁수

투고일자: 2015. 11.22 | 심사완료일자: 2015.12.6 | 게재확정일자: 2016.2.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일동포들은 높은 법적·제도적 차별 장벽과 극심한 사회적·경제적 차별 속에서 에스닉 공동체의 정보를 축적·배분하는 등 에스닉 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신분 상승을 꾀해왔다. 히구치 교수는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볼 때, 이민 연구 용어로 재일코리안을 자리매김한다면 분명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가 될 것이다. 이 용어는 현재 주로 재미 아시아계 이민에 대해 쓰고 있는데, 2세의 높은 교육수준과 화이트칼라 진출을 특징으로 한다. 재일코리안의 경우 취직 차별 때문에 재미 아시아계 이민보다 한 세대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모델 마이너리티'의 지위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히구치의 가설과 결론을 전문가 집단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303 국문초록

나올 것인가?

이 글에서는 전문직 진출이 민족적 소수자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는 전제하에, 변호사와 학자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현황을 정리하여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사회의 현재를 조명하려 한다. 무엇이 김경득 변호사 등장의 파장을 그리도 크게 했으며, 변호사 김경득의 등장이 재일동포사회의 역사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사회와 재일동포사회에서 재일 변호사들의 위상은 어떠한 것이며 거기에서 어떤 의의를 찾아야 하는가? 학자 집단은 재일변호사 집단과는 어떤 이동(異同)을 보이고 있는가? 또한 상기 히구치의 가설과 결론을 전문가 집단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가 일부 재일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결과, 그리고 주로 2008년에 〈한국인연구자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해온 개인적인 체험과 고찰을 바탕으로 재일 전문가 집단의 현황과 위상을 다면적으로 조명한다. 그리고 '모델 마이너리티' 주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할 수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화된 것으로 아직 수적으로 미흡하며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만큼 여전히 존재하는 법적·제도적 차별에 대항하는 재일동포사회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주제어: 전문가 집단, 변호사, 연구자, 모델 마이너리티, 한국인연구자포럼

####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더블'의 역사성에 관한 담론을 통해 | 리홍장

투고일자: 2015, 11.11 | 심사완료일자: 2015.12.4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이 글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더블'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각을 실제로 '더블'에 의한 닦론실천을 통해서 고찰하는 것이다.

'더블'은 일본과 한국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해와 피해의 이원론 아래서 입장성을 둘러싼 갈등을 경험한다. 하지만 과거청산이나 차별문제가 아직도 재일조선인 생활의 '현실'을 구성하는 가운데, 그 들의 '애매'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의 역사성을 망각시켜버리 는 담론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의 '더블'에 의한 이야기는 가해와 피해의 이원론을 극복하면서 또 역사에 언급하고자하는 자세나, 타자와의 상호 행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스테레오타이프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의나 작법이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담론적 실천은 기존의 정체성 연구가 빠져온 민족본질주의와 사회구축주의 사이의 논쟁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역사를 둘러싼 경험을 타자와 공유하는 공론장의 창출을 시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재일조선인, 더블, 디아스포라, 정체성, 역사성

#### 1990년대 이후 조선족의 도일과 정주화: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관점에서 | 권향숙

투고일자: 2015. 11.23 | 심사완료일자: 2015.12.10 | 게재확정일자: 2016.2.3

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조선족의 도일과 정착 과정을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에 걸쳐 사는 조선족의 실태와 특징을 부각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초반 국비 유학생을 필두로 시작된 조선족의 일본행은 1990년대 들어 급증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반세기를 넘는 역사를 새겨왔다. 일본 조선족사회의 중심 구성원인 유학생의 도일 배경에는 한국행을 선택한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도일하는 조선족 유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조선족의 도일과 오늘날 일본에서 형성되는 조선족사회를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조선족의 일본행과 한국행은 한 가족 세대 간에 동시에 진행되는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족의 가족 분산과 재결합은 바로 가족의 생존전 략이자 생활실천을 의미하며 그 함의는 초국가적이며 지역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가족의 분산과 재결합. 가족 생존전략. 이동. 도일. 정주화

#### 연구논단

### '확대 지향'의 시 형식과 '축소 지향'의 시 형식: 시조와 하이쿠의 형식상 특성에 대한 하나의 비교 분석 | 장경렬

투고일자: 2015, 10.2 | 심사완료일자: 2015.11.30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시 형식인 시조에 상응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시 형식으로 하이쿠가 지목된다. 아울러, 이 두 시 형식에 대한 비교 논의가 줄곧 시도되어왔다. 명백히 시조와 하이쿠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한 시 형식이지만, 두 시 형식 사이에는 또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조가 기승전결이라는 구도 안에서 시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시 형식이라면, 하이쿠는 두 개의 이미지를 중첩의 구조로 제시하는 시 형식이다. 이 글에서 논자는 이런 관점에 근거하여 시조와 하이쿠에 대한 역사적 및 내재적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논의를 시도한다. 그 결과, 논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단시조에서 사설시조로, 사설시조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시조로 발전해온 시조를 '확대 지향'의 시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단카에서 발원한 렌가에서 하이쿠로 발전해온 하이쿠는 '축소 지향'의 시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축소 지향'의 시 형식으로 정립되는 데 근거가 된 하이쿠의 본원적 특성을 '초시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면, '확대 지향'의 시 형식으로 정립되는 데 근거가 된 시조의 본원적 특성은 '시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결론과 관련하여 한 마디 첨언하자면, 시조와 하이쿠에 대한 논자의 분석은 결코 두 시 형식에 대한 가치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확대 지향성과 축소 지향성이라는 개념 및 시간성과 초시간성이라는 개념은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이 우월한 시 형식이라는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교 분석을 통해 양자의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주제어: 시조, 하이쿠, 확대 지향, 축소 지향, 시간성, 초시간성

####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 정진성

투고일자: 2015. 12.4 | 심사완료일자: 2015. 12.17 | 게재확정일자: 2016. 2.3

일본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 기존의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보다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 변혁하고자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0년경까지 고용, 금융, 기업지배구 조에 관한 법제도의 기조는 종래의 장기적 관계 중시에서 시장원리 중시로 크게 이동했다. 그러나 실제의 시스템 운영에서는 여전히 시장지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복수의 시스템이 경합,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제도 간 보완성의 존재, 교육훈련시스템과 같은 제도 개혁의 곤란, 가계의 안정자산 선호와 같은 경제주체의 행동패턴에서 나타나는 고착성 등을 들 수 있다.

주제어: 구조개혁, 일본형 경제시스템

305 국문초록

#### **ZAINICHI KOREA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Diaspora Theory and** *Zainichi* **Koreans in the East Asian Political Context** | SHIN Ki Young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usefulness and limits of the theory of diaspora as a conceptual tool in understanding the history and the present, and the personal and group experiences of ethnic Koreans (Zainichi Koreans) in Japan. Neither the concept of ethnic minority nor transnational migrants fully captures the state of Zainichi Koreans; while they are highly assimilated to the host society culturally and economically, Koreans have kept their ethnic identity and nationality, retaining a strong emotional bond with their homeland. The conceptual framework of diaspora, focusing on triad relations of diaspora, host society, and homeland, can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ship of Zainichi Koreans with Japan (the host society) and two Koreas (homeland) as well as their identities. Yet a review of studies on Zainichi Koreans suggests tha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raditional diaspora needs to be reformulated to a four-party relationship in order to analyze how the competitive yet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wo homelands shaped by Cold War politics in East Asia has affected Korean diaspora in Japan. To do this task, the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o and writing multiple histories of various disaporic subjects on their experiences with the host society and homelands, and deconstructing the myth of monolithic group identity based on a shared victim history.

• Keywords: diaspora, Zainichi Koreans, East Asia, minority, diasporization

# Zainichi-Korean Intellectual's Ethno-National Discourse in Korea since 1990s: A Critical Review on Kyung-sik Seo's Discourse for "Resistance against Colonialism" | JO Gwan Ja

In the 1990s, Kyung-sik Seo presented the "nation of every Korean," which includes Korean diaspora. Since 2002, however, his argument has changed. He redefined the *Zainichi*-Korean as a "refugee or half-refugee" instead of a "subject of the sovereign state and the national liberation." Seo's argument shows that he has applied the current issue of Palestinians to the theory of *Zainichi*-Kore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Kyung-sik Seo's discourse of resistance that has changed over time.

From the 1990s, Japan promoted a policy of "multicultural coexistence/symbiosis" (*Tabunka Kyōsei*). The theory of symbiosis which advocates the "multinational, multiethnic civil society" was popular in the *Zainichi*-Korean society. However, Kyung-sik Seo criticized the reality of "coexistence/symbiosis" as the policy for assimilation. He rather argued that *Zainichi* Koreans are not the "ethnic minority" but the subject that would establish the "nation of every Korean." He further created the "myth of the origin," that every Korean diaspora was exiled from the home country due to colonialism, and argued that colonialism still continues in Japan. Therefore, his alternative is that every Korean's sovereign organization such as the PNC(Palestine National Council) must be established. Yet, the theory of nation of every Korean resembles Zionism of Jewish diaspora.

Kyung-sik Seo states that "there is no citizen" in the Japanese society which preserves the Emperor as the symbol of the state. However, whether it is Japan's Emperor-centered nationalism or Korea's anti-Japanese nationalism, both of their nationalism are similar in that they aim to criticize the present reality and overcome it. Rather than mediating political division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civil symbiosis, they attempted to consolidate the political wills based on the logic of "nation as the whole." This paper inquires whether Kyungsik Seo's ethno-national discourse effectively contributes to Japan and Korea's post-colonialism and further to Asia's peace in the post-Cold War era.

• **Keywords:** symbiosis, Korean diaspora, Palestine National Council, multiethnic civil society, nation as the whole

# **30 Years Trend in Occupational Status of** *Zainichi***-Koreans: Analyzing Data of Population Census, 1980-2010** | HIGUCHI Naoto

Zainichi-Koreans are known to be limited in the labor market because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Yet, the discrimination has been mitigated since the 1980s. Then, how has the occupational structure (or status) of Zainichi Koreans changed?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 structure of the past 30 years, using the census data from 1980 to 2010. The three types of changes—(1) ethnic enclave, (2) economic assimilation, (3) intra-ethnic polarization—are set as hypothesis and tested with the following results: (1) Ethnic enclave is maintained in a sense that ethnic businesses (enterprises) over a certain size continue to survive with the participation of younger generations while self-employed businesses decline. (2) Economic assimilation has developed as most of post-1966 generations are employed as white-collar workers in Japanese firms and the occupational gap between Zainichi-Koreans and Japanese decreases. (3) Those who are born between 1946 and 1965 have experienced downward mobility due to the closure of self-employed businesses and the increase in unemployment rate. Yet, except the high unemployment rate that still continues, the overall trend shows that the intra-ethnic polarization has not occurred. For younger generations, it is still true that unemployment rate remains higher, but the overall effect of

307 영문초록

the ethnic enclave and the economic assimilation has narrowed down the occupational gap between *Zainichi*-Koreans and Japanese.

• Keywords: Zainichi Koreans, social class (strata), employment discrimination

# The Status of Korean Professionals in Japan: Case of Lawyers and Scholars | YOO Hyuck Soo

After WWII, Koreans have strived to raise their status in Japanese society by taking advantage of ethnic economy such as accumulating and distributing the ethnic community's information under the huge barriers of legal/institutional discriminations and oppressive societal or economic discriminations. Professor Higuchi contends that Koreans can be defined as a "model minority," who is characterized by a high level of education and a large percentage of white-collared workers,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to endure a longer period of time (one more generation) than Korean Americans did due to discriminations in employment. If we apply Higuchi's definition to a group of Korean professionals, what kind of conclusions can we g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ress the contemporary status of Koreans within Japanese society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ofessional workers, particularly lawyers and scholars, under the assumption that an increase in number of professional worker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ocio-economic status of an ethnic minority. What made Kyung-Duk Kim's advent such a significant event, and what kind of significance does the lawyer's presence bear in the history of Koreans' society? What is the status of Korean lawyers in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and Korean society, and what is its implica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ciety of Korean lawyers and that of other scholars? Furthermore, if we apply Higuchi's definition of Koreans to a group of Korean professionals, what kind of conclusions or implications can we get?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paper analyzed the context and status of Korean professionals from diverse perspectives, based on the author's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Korean lawyers and particularly on his personal experience and reflection on Korean Scholars' Forum in Japan, which the author established in 2008. Finally, the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concept of "model minority" can be a valid claim, Korean society in Japan, which is still small in size and unstable, has to make an intentional effort to confron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s that have remained since the 1990s.

 Keywords: professional, workers, lawyer, scholar, model minority, Korean Scholars' Forum in Japan

# Perspectives on the Identity of *Zainichi* Koreans: Insight into the Historicity of Doubles' Discoures | LEE Hong Jang

This article presents the viewpoint we should take in understanding identities of the socalled "Doubles," the people born between *Zainichi* Koreans and Japanese. In this regard, we consider the Doubles' actual narrations, in referring to their discursive practices.

The Doubles are forced to be conflicted on their standpoints, caught between the dualism of assailants and victims commonly shared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 societies. However, their reality exists as either the discrimination or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Thus, it becomes difficult to describe the "ambiguous" standpoints since they might be interpreted as a discourse that forgets the history of *Zainichi* Koreans.

However, when we examine the actual narratives of Doubles, we find the perspectives referring to the history without relying on the dualism of assailants and victims. Additionally, the style and manner prevent their narratives from being stereotyped into certain categories in interacting with others. These discursive practices provide viewpoints that overcome the barren discussions of essentialism and constructionism that previous identity studies have fallen into. Also,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indication of creating a public sphere that makes sharing experiences about history possible.

• Keywords: Zainichi Koreans, Doubles, diaspora, identity, historicity

#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and the Settlement Process since 1990s: Scattering and Reunion of Families | KWON Hyang Su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the re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jok residing across various East Asian countries by looking at their immigration and settlement process from a particular viewpoint of the scattering and reunion of families. The advent of Joseon-jok in Japan has started in the early 1980s when foreign students came to study in Japan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sponsorship. The number of Joseon-jok immigrant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1990s and since then, the history of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has reached more than a quarter of the century. The financial support of parent generations who decided to go to South Korea for work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mmigration process of the foreign students who are the core members of the Joseon-jok society in Japan. Therefore, when analyzing and studying Joseon-jok's immigration to Japan and their society in Japan toda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Joseon-jok students who came to Japan but also the role of their parent generations. In other words, Joseon-jok's migration to both Japan and South Korea has to be comprehensively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organic connection between two generations of families. For them, the scattering and reunion of families is their survival strategy and life practice itself. Therefore, its implication can be grasped from a transnational and regional perspective.

• **Keywords:** scattering and reunion of families, survival strategy of families, migration, immigration to Japan, settlement process

309 영문초록

#### **ARTICLES**

#### The Poetic Form of Extension and of Intens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Sijo and Japanese Haiku | JANG Gyung Ryul Sijo, a traditional Korean poetic form, is often mentioned side by side with what may be termed its Japanese counterpart, haiku; and these two poetic forms have frequently served as objects of comparative studies. Indeed, it is fair to say that they are positively comparable in many aspects; however, sijo and haiku are more different than similar poetic forms. Most important of all, while sijo introduces poetic images through the four steps in composition, i.e.,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haiku presents them through the superimposition of one image on another. Based on this distinction, I have attemp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storical and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poetic forms. My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sijo may be described as the poetic form of extension that has been developed from dansijo to sasolsijo to new-style yonsijo, while haiku as that of intension that has been developed from renga, evolved from tanka, to haiku; second, sijo can be defined as the poetic form of temporality, whereas haiku as that of a-temporality. Faced with my argument, one might be suspicious of value-judgments; however, my conclusion as well as my analysis is neither intended nor meant for any kind of value-judgment. I simply want to make clear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of the two poetic forms, sijo and haiku.

• Keywords: sijo, haiku, extension, intension, temporality, a-temporality

# The Change of the Japanese Economic System under the Structural Reforms during the Long Recession of 1990s | CHUNG Jin Sung

In the early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had advanced the structural reforms aiming to transform the old relationship-oriented economic system into the new market-oriented system, as the major policies to revitalize the sluggish Japanese economy during the long recession. As the result of the reforms, until about 2000, the major reforms were achieved in the areas of employment system, financial system and corporation governance. However, around 2010, we could yet observe coexisting plural systems based on the different mode. 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ystem will converge on the market-oriented system due to reasons such as: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difficulty of change in certain systems such as education-and-training system, and households' persistent preference for riskless asset.

• Keywords: structural reform, Japanese economic system

## 『일본비평』15호 특집에 관하여

『일본비평』 편집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15일 발간 예정인 제15호에서 "제로성장기의 일본경제와 사회변화"(가제/책임편집: 여인만)라는 주제로 특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제 회복을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더 이상 고성장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제로성장기'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모순이 더욱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정상상태로 인정하고 그 상황하에서 생활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성장을 멈추게 됨으로써 일본의 정치, 사회, 나아가 개개인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는 이 시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쇠퇴하고 악화되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경제와 사회를 형성해가는 '시행착오의 20년'이라는 이미지를 함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의 이미지를 통합함으로써 향후 일본의 경제와 사회의 방향을 올바르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마감은 2016년 4월 30일이며 소정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유주 제에 의한 연구논단의 투고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간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140동 403호 / Tel: (02)880-8503 / e-mail: ilbi-ijs@hotmail.com

#### 투고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격: 국내외 인문 · 사회과학 분야의 일본관련 연구자.
- 2. 내용: 일본에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로서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
- 3. 종류: 저술물의 종류는 일본연구에 관한 논문, 서평, 특별기고, 기타로 한다. 논문은 특집논문과 자유투고논문으로 구분한다. 특집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집필을 의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평은 특집주제를 보완하는 성격의 '주제서평'과 국내외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한 '신간서평'으로 구분한다. 특별 기고는 편집위원회가 특집논문과 별도로 집필을 의뢰한 학술적 성격을 갖는 저술물을 가리킨다.
- 4. 분량: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150매 내외로 한다. 서평의 경우 주제서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80매 내외, 신간서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특별기고와 기타 원고의 분량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 5. 원고작성: 「일본비평」의 원고작성은 본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 원고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6. 제출: 원고는 '아래아 한글' 혹은 '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 7. **투고마감:** 특집의 경우 해당호의 발행 3개월 전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특집 이외 자유투고의 경우 투고와 심사를 상 시적으로 실시한다.
- 8. 수정의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 학수 있다
- 9. 심사비: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편집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현재는 면제)
- 10. 원고료: 채택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외부 사사 표기 논문 제외)
- 11. 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 귀속된다.